

詩 歌 에 나 타 난 性 象 徵 考

—時調의 表現技巧를 中心으로—

許 英 子

<차 례>

- | | |
|-----------------|-------------|
| 一. 序 | (2) 直接的 性象徴 |
| 二. 古代歌謠에 나타난 性觀 | ① 男性象徴 |
| 三. 三國歌謠에 나타난 性 | ② 女性象徴 |
| 四. 麗謠에 表現된 性 | ③ 行爲象徴 |
| 五 時調와 性 | 六. 結 |
| (1) 間接的 性象徴 | |

一、序

人間이 가진 무수한 欲望과 欲求 가운데 第一次의 欲求는 人間의 生理的인 面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는 生命保存의 欲求와 種族保存의 欲求, 즉 食慾과 性慾이라고 한다.

그런데 人間이 <먹는다>는 데에 대하여서는 如何히 사치스러운 美食家라 할지라도 다만 <맛>을 보기 위하여서만 먹는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珍羞盛饌을 먹거나 草根本皮를 씹거나 그것이 生命의 維持라는 데에 第一義的인 目的을 두는 行爲라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食慾이란 지극히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欲求로 받아들인다.

食慾 다음으로 가장 原始的이고 強烈的한 人間의 欲求는 性慾이다. 그런데 同一한 一次的 欲求임에도 불구하고 性慾에 대하여서는 프리섹스의 時代라고 하는 現代에 사는 우리들도 食慾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처럼 아무 抵抗없이 自由롭고 自然스럽게 받아들이거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暗市場 商人들이 商品을 去來하듯 은밀히 이야기 되거나 아니면 엄숙히 이야기(가령 學校에서의 性教育時間 같은 때) 되거나 한다. 혹은 이러한 것에 대한 反射作用으로 歐羅巴의 어느 社會 같은 데서는 심히 露骨의으로 表現되기도 한다.

물론 이렇게 되는 데에는 人間社會의 秩序나 道德的 倫理的 制約 및 價値觀 등의 影響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性은 時代나 社會에 따라서 대단히 부끄러운 일, 好奇心을 자극하는 일,

계면적인 일이 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일, 뻔뻔스러운 일이 되기도 하였다.

性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로 隱蔽되거나 혹은 露骨의으로 表面化되거나 간에 人間에게 있어 가장 重要的 問題요 關心을 끄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性은 生理學이나 心理學, 法學, 民俗學, 古考學 등 學問의 分野에서도 중요한 研究對象이 되고 있을 뿐아니라 (프로이트 같은 이는 그 代表的 例가 될 것이다.) 人間이 創造해온 모든 藝術作品의 中心主題中의 하나가 되어온 것이다. 音樂, 美術, 文學, 舞蹈, 戲劇, 映畫, 그 어떤 分野의 藝術이건 일찍기 性을 다루지 않은 藝術은 없다. 따라서 「性心理라 하는 것은 全人類의 共通된 心理로서 이것을 人類 性現象의 心理라 할 수 있고 이 연구는 곧 社會的, 歷史的, 文化的, 그리고 民俗的인 現實의 研究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¹⁾ 그리고 보면 性이란 참으로 緊密히 人間生活과 關係되고 있어 性 곧 人間學, 人間文化的 根本이라고 말하여도 결코 過言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性을 이야기할 때에는 흔히 두 가지 側面 즉 生殖으로서의 性과 快樂으로서의 性을 나누어 生覺하기가 일수이다. 그리고 性의 이 두 가지 機能은 항상 對立, 葛藤을 일으키며 人間社會의 倫理, 道德, 規範, 制度에까지 깊은 影響을 미쳐 삶 그 자체의 모습까지도 變貌시키왔고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다.

「바타이오는 性을 두 가지 性質로 구분하고 있다. 즉 功用主義의 性的 활동과 또 하나는 에로티시즘. 이 두 性的활동은 서로 對立한다고 말하고 있다. 前者는 功用性을 바탕으로 生殖, 子孫繁榮을 목적으로 하는 生物學的 성적활동으로써 프로이트流의 말을 빌리면 現實原則에 입각한 성적 활동이다. 또한 후자는 快樂原則에 입각한 성적활동으로써 바타이오는 에로티시즘을 <죽음에까지 높아가려는 삶의 昂揚>이라 규정짓고 있다.」²⁾

윗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性의 합理性, 絕對的 價値性은 그의 種族保存의 機能에 있다는 데는 누구라도 異義가 없을 것이며 「눈으로도 간음치 말라」고 한 예수그리스도나 「女人을 안되 나무등걸을 안 듯 하라」고 한 釋迦牟尼까지도 性의 種族保存의 機能까지를 否認하거나 罪惡視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나 에로티시즘으로서의 性, 그것의 快樂의 機能에 대하여서는 항상 많은 論難과 是非가 있어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飮食을 먹으면서 맛있는 음식은 찾는 것과는 다른 次元, 다른 比喩를 지니기 때문이다. 種族의 繁殖을 원치 않는 性愛도 있고 또 설사 孕胎를 目的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 快樂과 기쁨이 全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기쁨이 없는 性愛란 人間社會에서는 단순한 排世作用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性의 快樂的

1) 張德順：〈韓國說話文學研究〉 p.71 서울대 출판부

2) 張伯逸：韓國文學과 性모랄 〈月刊文學〉 28號 p.235.

機能은 生殖의 機能에 從屬되거나 附隨되는 것이 아니라 別個의 獨立되고 對立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해 온 것이다. 「姦淫한 者를 들로 켰던」이스라엘의 律法主義者나 혹은 結婚도 하지 않은 神父들에 의하여 行해졌던 엄격한 宗教裁判 등은 모두 性的 遊戲性 내지 快樂的 機能을 逆說의으로 強調한 나머지 罪惡視하고 타부로 삼았던 것이나 아닐까.

반면 D.H. 로오렌스 같은 이는

「性と 美는 불과 불꽃과의 관계처럼 實은 同一한 것이다. ……성이란 무엇일까. 우리들은 그 正體를 알 수가 없다. 허나 그것은 무슨 불과 같은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언제나 따뜻한 느낌, 타고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³⁾

라고 하여 性愛를 桃色主義的 遊戲나 春畫나 淫畫를 즐기는 肉體主義와도 구별하였고 清教徒의으로 무조건 性을 罪惡視하는 行爲도 「心身 共히 病들어빠진 病人」⁴⁾들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로오렌스에 이르러 性이란 「인간 생활에 있어 대단히 강력하면서도 유익하고도 필요한 자극」⁵⁾이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로 合一하려는 意志요, 生命力에 充實코자하는 美的 行爲이며 부끄러움 없는 기쁨이 된다. 그리고 또 그것은 自由로운 意志, 自然스런 行爲이며 生活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다.

以上에서 잠간 살펴보았지만 性이라고 하는 人間生活의 主要테마에 대하여서는 어떤 특정한 時代나 社會의 價値觀에 따라서, 혹은 個人의 특수한 觀點에 따라서 性觀도 變貌되어 왔다. 때로는 倫理的 強制性에 의하여 苦痛스러운 것, 罪스러운 것으로, 때로는 墮落과 破滅을 招來하는 것으로, 때로는 가이없는 生의 喜悅을 불러오고, 生을 確認하는 純粹한 渴望으로, 또는 生殖과 繁榮을 가져오는 聖스러운 힘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性觀의 差異는 性이 文學의 主題나 素材로 採擇되거나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樣相을 띄고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神聖視되고 禮讚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禁忌의 것이 되기도 하고 또한 憎惡되고 醜惡한 것으로 奈落에 떨어지는 罪의 契機가 되기도 하였다. 때에 따라서는 喜劇的인 것이 되기도 하고 悲劇的인 것이 되는 때도 있었다.

文學의 內容이 이렇게 多樣하게 나타남에 따라 그 內容을 담은 形態도 따라서 影響을 받지 아니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性的 描寫와 表現이 밖으로 露出되어 直接的, 直說的, 露骨의으로 表現되기도 하는가 하면 숨겨져 暗示的 象徴的으로 描寫되기도 하였다.

文學作品的 內容이 性이라는 問題를 肯定的으로 보느냐 否定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 表現方法이 露出되는나 隱蔽되는나에 따라서 그리고 그 文學作品을 보는 基準, 批判

3) D.H. 로오렌스 · 〈性と 文學〉 pp.39-43. 金秉喆譯 一韓國圖書出版社刊.

4) Ibid p.116.

5) Ibid p.115.

의 尺度에 따라서 好色文學이니 猥褻文學이니 하는 論難이 있어왔다. 同一한 한 作品이 好色文學 猥褻의 作品으로 指彈받기도 하고 禁書가 되기도 하는가 하면 不朽의 古典이 되기도 하였다. 로오렌스에게 있어서는 <데카메론>은 新鮮하고 健全한 生命力있는 아름다운 古典이나 <제인 에어>는 好色的인 作品이 되고 말아 一般常識의인 見解를 無顔케 한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法廷에서 有罪判決을 받은 <보바리夫人>이나 <惡의 꽃>은 오늘날 훌륭한 名作으로 登錄되고 있으며 역시 裁判소동을 벌이고 禁書가 되었던 <차탈레이夫人의 사랑>을 猥褻의인 作品이라고 一蹴하지 않은 않는다.

이렇게 보면 文學作品이 단순히 性を 取扱하고 描寫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美風良俗을 해치는 非道德的 反倫理的 頹廢의 作品이라고 規定짓는 것은 성급하고 편협하며 近視眼의인 判斷이 되기 쉽다.

우리 韓國文學의 경우에도 이런 例는 있다. 이른바 高麗俗謠——高麗나 李朝의 道學者 知識階級에 의하여 「男女相悅之詞」라는 한 마디로 一蹴되어 한동안 口傳에 依하여서만 그 命脈을 維持할 수밖에 없었던 이 排斥받아온 노래는 오늘날 우리 國文學史上 重要한 古典이 되고 있으며 가장 人間的이고 赤裸裸하며 感動的인 貴重한 作品으로 評價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春香傳>, <卞卮傳>, <배비장傳> 등의 小說을 위시한 많은 說話, 雜歌, 民謠 등이 性を 描寫하였다고 하여 廢棄되지는 않고 있다.

이제 本篇에서는 韓國의 古代詩歌, 그 가운데서도 民族文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時調를 中心으로 나타난 性의 象徴을 그 表現技巧面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二. 古代歌謠에 나타난 性觀

무릇 모든 詩歌의 發生을 論할 때에는 그 起源을 原始人들의 宗教儀式에서 찾는다. 저들이 祭祀를 지내면서 行하였던 춤과 노래의 綜合藝術에서 分化發展하여 詩歌가 派生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詩歌가 勞動의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생겨났다고도 한다. 그런데 原始人들에게 있어서는 生活은 곧 祭祀요, 祭祀는 곧 生活과 不可分離의 關係를 갖는 것이었다.

「原始人의 生活은 宗教的 觀念과 分離하기가 困難하였기 때문에 純全히 노동에서 발생한 詩歌도 어느듯 宗教意識을 받아들여 宗教的 歌舞와 勞動의 歌舞와의 사이에는 明確한 區別이 없게 되고 만다」⁶⁾

이와같이 趙潤濟博士도 안팎한 것처럼 原始人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生存 生活과 밀접한

6) 趙潤濟·〈韓國文學史〉 p.13. 探求堂刊.

關係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生死를 가름하는 不可思議한 것, 큰 것, 힘이 센 것 등은 곧 敬畏의 對象이 되었을 것이다. 巨石, 巨木, 太陽, 風雨, 猛獸 등을 崇拜하는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며 이 祭祀義式에 쓰이었던 祭謠가 勞動謠로도 쓰이고 勞動謠가 祭謠의 性格을 띄우게 되는 것은 祭政一致의 古代社會속에서는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하늘에 祭祀기내는 祭天儀式이 있어왔다. 夫餘의 迎鼓, 歲의 儻天, 혹은 三韓에서 行하여졌던 農功始耨期의 祭祀 등이 그것이며 거기에서 古人들이 歌舞飲酒하였다는 記錄에서 우리들은 지들의 歌謠的 生活의 原初形態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玄記術이 發達하지 못한 때라 지들이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렀나 하는 具體의 內容이나 形態를 알아볼 길이 없다. 다만 그것이 宗教儀式과 關係가 깊고 同時에 農耕生活와 關係가 깊은 內容이었을 것이라고 推測해볼 수는 있다.

古代歌謠로서 祭謠의 性格을 띄고 呪術의 힘을 가진 노래로 現存하는 것으로는 漢譯되어 傳하는 龜旨歌가 있다. 三國遺事 卷二 駕洛國記에 보면 그 建國神話 속에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라
내밀지 않으면 구어 먹으리라」⁷⁾

라는 內容의 노래가 나온다. 이것은 물론 首露王을 맞이하기 위하여 一群의 사람들이 龜旨峯에 올라 함께 부른 集團舞謠였다. 이 歌謠에 대하여 趙潤濟博士는,

「그 표현이 純宗教的으로 되어있지만 그 표현은 一種의 修飾이며 또 解釋이고 그 實은 九干等이 掘塚掘土의 功勳을 하면서 그 노동의 피로움을 減少하고자 龜何 龜何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⁸⁾

라고 하여 集團勞動謠로 보았다. 그런가 하면,

「龜何龜何의 유명한 龜旨歌는 그 威嚇의인 文面으로 보아 典型的인 呪言인 바 Malinowski에 의하면 巫覡의 狀態와 祭儀로 더불어서 이 呪言을 魔術의 三位一體를 形成하고 있어……」⁹⁾

라고 하여 呪文으로 풀이한 분도 있다. 龜旨歌를 勞動謠나 巫歌로 보는 見解와는 달리 鄭炳昱教授는 이 노래를 隱喩化된 原始人들의 性謠로 解釋하였다.

「거북의 북은 男子의 性器를 隱喩한 것이라고 보고자 한다. 더구나 거북의 북이 外觀上으로는 男根과 恰似하다는 事實과 아울러 생각할 때 〈神靈스러운 生命의 根源을 나타내자〉는 이 노래의 製作契機는 原始社會에 있어서 女性이 男性을 誘惑하는 手段이었고 거북의 북은 Phallic Symbol로 解釋할 수

7) 「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三國遺事〉卷二 駕洛國記.

8) 趙潤濟·〈韓國文學史〉p. 12.

9) 金烈圭·駕洛國記攷 〈국어국문학〉 第三輯 p. 9. 釜山大學校刊

있으리라 본다.]¹⁰⁾

「(燧火)이라는 불의 이미지는 곧 原始人들의 激烈한 慾情이 깃든 女子性器의 隱喩라고 보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따라서 龜旨歌의 成立은 神聖한 建國神話의 形成以前으로 올라가 原始人들의 性慾에 대한 強烈하고도 素朴한 表現에서 그 契機를 把握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즉 女性이 男性을 誘惑하는 하나의 手段으로 이 노래는 처음으로 불려졌던 것이 차츰 時代의 推移에 따라 一種의 呪文的인 機能을 갖게 되었고 甬기아는 建國神話에까지 끼어들었다고 보는 바이다.]¹¹⁾

이렇게 龜旨歌를 풀이하였다.

筆者는 여기서 龜旨歌를 性謠의 하나로 보는데 대하여서는 共感을 갖하면서 그러나 뜨거운 誘惑의 性謠가 차츰 呪術的인 巫歌로 변하고 드디어는 「迎神君」하는 거룩한 노래로 변하였다고 보는 見解와는 좀 다른 意見을 가진다.

古代社會에서는 性이란 부끄럽거나 醜惡한 것이기 前에 生命의 根源이 되는 기묘한 힘이 있던 것으로 推測된다. 벌써 西紀前 10,000年 頃에 막달레니아人은 洞窟 속에 훌륭한 그림을 그리거나 색여놓고 있는데 그 그림들이 人間을 그렸을 때에는 대개 誇張的인 性的 表現을 하고 있다고 한다. 文化史 記術에 依하면,

「사람의 모습이 대개 검징 하나만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粗稚하거나 形式的이며 性器에 重중한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때로 훌륭한 연장을 만들어서……것과 허벅 디리와 엉덩이를 지독하게 誇張한 女人像도 彫刻하고 있다……人間의 性的 差異를 지나치게 強調하고 있음은 必然의으로 多產崇拜를 시사하는 것이다.]¹²⁾

라고 하여 誇張 強調된 性的 表現을 原始人의 多產崇拜思想으로 보았다.

이러한 痕迹은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民俗信仰에서도 엿볼 수 있다. 바위 숭배가 곧 그것으로 이는 石器時의 遺物인 돌메이나 멘히르에서 나타난 巨石崇拜思想에 遠리 根源을 두는 것일지도 모르나 어쨌든 得兒를 위하여 致誠을 드리거나 祈雨祭를 지낼 때 큰 바위를 찾아가서 祭祀를 지내는 예가 많다. 그런데 그 바위의 모양이 기이하게도 대개 男根의 形象을 띠어 있는 것이다¹³⁾. 이처럼 男根石 女根石 崇拜의 原始宗教에 있어서는 性=生殖=崇拜의 關係가 成立된다.

다음으로 祭政一致의 古代社會에 있어 王이란 어떤 存在였을까. 韓國의 建國神話에서 보면 王은 내게 異物接婚을 하여 誕生하거나 卵生, 즉 알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다. 이들은 앞에서 말한 바와같이 原始人들의 宗教——애니미즘과 토테미즘에 의하여 人文, 自然現象들

10) 鄭炳昱. 韓國詩歌文學史 <韓國文化史大系> Ⅴ p. 767.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刊.

11) Ibid 769.

12) 크레인 브라운, 著 B. 크리스토퍼, 로버트 L. 울프 共著 梁秉祐 外 三人譯 <世界文化史> 上 p. 20 乙西文化社刊.

13) <民學> 2 p. 18, p. 20, p. 22. 民學會編.

이 神格化되고 다시 그것이 人格化된 人物들이었다. 따라서 그 임금들은 흔히 農耕神, 혹은 光明, 海洋, 地母, 穀母神들의 象徴이었으며 생김새가 特異하고 行蹟이 奇異하였다. 그런데 여기 注目を 끄는 것은 古代의 王이 性的 象徴이었던 記錄이 보이는 것이다. 三國遺事에서 新羅二王代 王 知哲老王記를 보면 「王의 陰長이 一尺五寸」¹⁴⁾이라 하였고 또 景德王記에도 「王의 玉莖長이 八寸」¹⁵⁾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古社會에서는 性=生産=王=神의 關係가 다시 成立되었다고 類推해 볼 수 있다. 따라서 上記 龜旨歌는 어느 한 가지 性格만을 띄우는 것이 아닌 性的 呪術의 祭謠的 勞動謠的 諸要素를 同時에 지니는 노래로 看做되는 것이다. 生産의이며 健康한 古代人의 性觀이 이 詩歌에서도 性禮讚 내지는 性的 神聖視로 노래 불리워진 것이다.

三. 三國歌謠에 나타난 性

(1) 편필나는 씨꼬리는
 자웅이 노니는데
 외로운 이내봄은
 뉘와곰 돌아갈고¹⁶⁾.

(2) 시볼 불너 두래
 밤느리 노너다가
 드벼사 자리보곤
 가르리 내히어라
 들흔 내해잇고
 들은 뉘해인고
 본터 내해나마를
 이사늘 엇니 할릿고¹⁷⁾.

14) 「王以永元二年庚辰即位 王陰長一尺五寸 難於嘉耦 發使三道求之……」〈三國遺事〉卷一 智哲老王.

15) 「王王莖長八寸 無子廢之 封沙梁夫人……」〈三國遺事〉卷二 景德王.

16) 「翩翩黃鸝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三國史記〉高句麗本記.

17) 梁柱東讀 古歌研究 p. 378.
 「東京明期月良
 夜入伊遊行如可
 入良沙寢矣見昆
 脚烏伊四是良羅
 二盼邊吾下於叱古
 二盼邊誰支卜焉古
 本矣吾下是如馬於隱
 垂叱良乙何如爲埋古」〈三國遺事〉卷二. 處容歌.

(3) 돌하 노피곰 도드사

머리곰 비취오시라

수저새 너러신고요

즌덕곰 드되올세라

어느이다 노코시라

내가논티 겹그돌세라¹⁸⁾.

(1)은 現存하는 韓國歌謠中 가장 오래된 詩歌의 하나로 看做되는 岾鳥獸이다. 이는 高句麗의 第二代 瑠璃王의 作이라고 하는데

「겨울 十月에 왕비 송씨가 돌아가셨으므로 王이 나서 두 女子를 맞이하여 繼室로 삼았다. 하나는 禾姬이니 鎭川사람의 딸이고 또 하나는 雉姬이니 漢人之 딸이었다. 두 여자는 서로 다투어 사이가 좋지 못하였는 바 ……한 번은 王이 箕山으로 사냥을 나가 七日 동안 돌아오지 않았더니 그 사이에 두 여자가 서로 다투어 禾姬가 雉姬를 욕하여 너는 漢나라질 婢妾의 몸으로 그 무례함이 여씨 이갈을까 보나 하므로 雉姬는 무고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돌아가 비졌다. 王이 그 소문을 듣고 말을 달려 찾아왔으나 雉姬는 노임을 풀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王이 돌아오다가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더니 펄떡이가 모여 십단게 날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느낀바 있어 노래하니 ……」¹⁹⁾.

라는 說話가 설해진 노래이다.

(2)는 新羅鄉歌 十四首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處容歌이다. 이 노래에도 역시 다음과 같은 背景說話가 따른다.

「第四十九代 眞康大王時代に ……大王이 開雲窟에 활이를 나갔다가 돌아 올 때 낮에 물가에서 쉬었는데 홀연히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길을 잃을 경도이었다. 피상하여서 左右에게 물으니 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東海龍의 造化이므로 좋은 일을 행하여 풀 것이라 하였다. 이에 當該官員에게 命하여 龍을 위하여 近處에 집을 세우도록 하였다. 王命이 내리니 구름이 개이고 안개가 풀렸으니 ……東海龍이 기뻐하여 아들 얼굴을 내리고 임금 앞에 나타나서 德을 讚揚하고 춤을 추며 許諾을 언주하였다. 그중 남 아들은 임금을 따라 서울에 와서 政事를 輔佐하였는데 이름을 處容이라 하였다. 王이 美女로써 아내를 산게 하여 그를 너분게 하고자 하고 또 級干의 職을 주었다. 그의 아내가 봄써 아름다웠으므로 控神이 흡모하여 사람으로 변하여 밤에 그 집에 가서 불내 伺寢하였다. 處容이 밖으로부터 집에 돌아와 자리에 두 사람이 들어누웠음을 보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물러 나갔다.」²⁰⁾

18) 樂學軌範.

19) 「冬十月 王妃松氏薨 王娶二女以繼室 一曰禾姬 鎭川人之女也 一曰雉姬 漢人之女也 二女爭寵不相和 後王出於箕山 七日不返 二女爭鬪 禾姬罵雉姬曰 汝漢家婢妾 何無禮甚乎 雉姬恨王亡歸 王聞之 策馬追之 雉姬怒不還 王嘗息樹下 見黃鳥飛集 及感而歌……」 <三國史記> 高句麗本記.

20) 「第四十九 眞康王代 ……於是大王遊開雲洞 王將還 鶴 喜歇於汀邊 忽去霧冥時 迷失道路 惟聞左右日官奏云 此東海龍所變也 官行勝事以解之 於是勃有司 爲龍觀佛寺近境 施令已出 雲開霧散 ……東海龍喜 乃率七子現於駕前 讚德獻舞奏樂 其一子隨賀入京 輔佐王政 名曰處容 王以美女妻之 欲有其法 又賜彼上職 其妻甚美 疫神欽慕之 變爲人 夜至其家 竊與之宿 處容自外至其家 見寢二人 乃唱歌作舞而退……」 <三國遺事>卷二. 處容郎.

(3)은 樂學軌範에 傳하는 百濟의 노래 井邑詞이다.

「井邑은 全州의 屬縣인데 그 縣人이 行商을 나가서 오래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그 아내가 山石에 올라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에 나니다가 糞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 웅덩이에 托하여 노래하였다.」²¹⁾

라는 이야기가 高麗史 樂志에 전하는 바대로 百濟女人의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세 노래를 살펴보면 三國時代人의 性觀이 그 歌謠에 어떻게 反映되고 있나를 알아보고자 한다

(1)은 高貴한 工의 作으로서 높은 品格과 또 高句麗의 強堅한 氣像이 엿보이는 作品이 되고 背景說話가 말하여 주 듯이 떠나버린 女人에 對한 그리움을 一태하고 自己의 외로움을 읊조린 抒情的인 愛情詩歌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시 漢文으로 전하는 古朝鮮의 麗王作 <箜篌引>의 淳淨한 愛情과는 좀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다. 曲盡하며 悲劇的인 要素에서는 共通點을 보이면서도 黃鳥歌는 男女愛情의 肉體의 體臭가 든어난다. 「떨떨나는 씨꼬리는 자웅이 노니누네」의 表現은 多分히 性愛的인 描寫라고 아니할 수 없다. 去頽截尾하고 「雌雄相依」리 한 表現에서 우리는 딱이나 自然스럽게 이야기 된 性을, 그야말로 自然스럽게 받아들일 게 된다.

(2) 處容歌에 이르러면 性은 완전히 自由스럽고 開放的인 樣相을 띠운다. 「드러사 자리본 곤 가르리 메히어라」라는 描寫는 지극히 諧謔的이며 寫實的이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淫蕩한 느낌을 주지 않는 것은 뒷 句節의 「본디 내해다마를 아사놀 엇디 흥릿고」에서 나타난 淡淡하고도 깨끗한 諦念에 基因하는 것이겠으며 이에서 當時 新羅社會의 性道德이나 性倫理의 自由스런 一面을 엿볼 수 있다. 아내와 姦通한 姦夫를 誹하거나 혹은 決鬪를 벌이는 대신에 이러한 노래를 기어 부르며 즐추었다는 것은 性을 禁忌로 抑制하거나 憎惡하는 社會에서는 도저히 容納될 수도 想像할 수도 없는 일일 것이다.

三國遺事 卷一 善德王知幾三事에 보면 善德女王이 玉門池에서 개구리 우는 것을 보고 百濟兵을 물리친 일을 說明하였는데

「… 개구리의 慈란 형상은 兵士의 형상이며 玉門은 즉 女根이니 女子는 陰이요 그 빛이 희고 또 흰 것은 西쪽이므로 軍사가 西쪽에 있음을 알 수 있으며 男根이 女根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법이라 그러므로 잡기가 쉬운을 알았다.」²²⁾

라고 하였다. 王이 政事를 돌부에 있어서까지 陰陽의 理致를 빌어오던 이러한 社會이니

21) 「井邑 全州屬縣 縣人爲行商久不至 其妻登山石以望之 恐其夫夜行犯糞 托泥水之汚以歌之 …」
〈高麗史〉樂志二.

22) 「蚌有怒形 其上之像 玉門者 女根也 女爲陰也 其色白 自西方也 故知兵在西方 男根入於女根 則必死矣 以是知其易捉」 〈三國遺事〉卷二. 善德王 知幾三事.

處容歌와 같은 노래가 形成될 수 있고 또 스스로움없이 흘러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性은 그야말로 自然스러운 人間の 行爲라는 解放된 性觀을 이 作品에서 알아볼 수 있다.

(3)은 一見 애처롭고 가녀린 사랑의 노래이다. 기다림에 지친 女人의 모습, 먼 길 떠난 男便을 근심하는 아내의 心情이 연연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대단히 濃艷한 淫詞로 풀이하고 있는 분이 있다. 池憲英教授는

「井邑詞는 淫褻之詞다. 아니 井邑의 兩文字 그대로 「井邑의 詞」 그것인 것이다. 愴然 이것은 人間 生命의 出發點에서 生命의 終結에 이르도록 發動하는 神秘不可說의 Something인 것이다. 古人은 이러한 生命의 根源은 感(咸卦)에 있다고 하여 人事의 出發에 人情 情感을 想定도 해보았던 것이며 이러한 人間의 生命은 宇宙 自然의 呼吸의 一面이라 하여 「天人合一與天地合其德」을 構想하기도 했던 것이다.」²³⁾

「井邑을 아랫녁 全羅道の 全州屬縣에 가서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肉體 內部에서 찾을 수 없을까 하는 疑問이 생기게 된다. 이리하여 筆者는 忠淸, 全羅, 慶尙地方에 아직도 存續되고 있는 禁斷地域을 象徵하는 陰語 「샘골」 「웅달샘」 「즌터와 通」, 「내가논터」와 應」을 들여두어 大方의 討伐 鑑賞을 바랄까 하는 것이다.」²⁴⁾

라고 解釋하였다. 第一聯은 「들하를 불러 暗中行爲의 監察報告를 請願한다」²⁵⁾고 보았고 二・三聯에서는 「저재」를 人肉市場으로, 「어느이」는 娼女로 보았으며 「즌터」와 「내가논터」를 肉體 안에 있는 禁斷地域의 象徵으로 보았다. 그리고 「드터올세라」에서 「드터다」는 交尾의 表現으로 「점그물세라」에서 「점그다」를 沈潛과 潛泳의 뜻으로 새겨²⁶⁾ 이 歌謠를 陰語는 교묘히 驅使한 淫詞로 풀이하였다.

以上 三國時代의 代表的 歌謠 세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歌謠들에 大體的으로 나타난 性觀을

23) 池憲英·井邑詞의 研究 <亞細亞研究> 第七號 p.174.

24) Ibid p.171.

25) Ibid p.165.

26) Ibid pp.168~169.

「即 「저자」(人肉市場도 있을 수 있다)와 「어느이」(娼女일 수도 있음)는 相應하는 것이며 「너려 신고요?」는 「노코시라」와 相對 對照될 것이다. 「즌터」(泥水處) 또한 「내가 논터」와 對應 相對하는 것이며 「드터올세라」 또한 「점그물세라」와 相應相照하는 것이다 볼 것이다. 이러한 豫備를 지니고 忠南·全北·慶北 一圓에 남아있는 方言 드터다(牛馬 六畜의 交尾를 表現하는 것)을 發見해 낸다면 「드터올세라」와 相照 相應하는 「점그물세라」가 무슨 뜻인가는 說明을 가려둠으로써 說明에 代할 수 밖에 없게 된다. 因하여 「즌터」와 「내가논터」(禁斷地域)가 肉體 안에 있는 무엇을 象徵하는 隱語·秘密語·流行語 等屬인가는 지름 說明을 가리어 두는 것이 좋을상 싶다. 다만 우리는……「내가논터」가 「나의 가는 곳」(남이 가서는 안되는 곳)의 뜻임을 歸結할 수가 있게 된다. ……「日沒」 「沈潛」을 意味하는 近代語 現代語는

日沒 저브다 집그다
沈潛 —— 점그다
沈潛 자마다 잠그다

로 「井邑」(저물다)와 「沈沒」 「潛泳」의 語源은 同一한 것인가 한다.

綜合要約하여보면 性의 自由主義라고 할 수 있다. 上古歌謠에서 볼 수 있었던 性의 神聖視에서 변모되어 人間的인 體臭를 풍기는 性으로서의 自然主義的 性觀을 內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四. 麗謠에 表出된 性

雙花店에 雙花사라 가고신 닐
 回回아비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숨이 이店밧겨 나명들명
 쪼고밧감 샷기광네 네마리라 호리라
 귀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잔디 마티 덮거츠니 업다

三藏寺에 갈허라 가고신 닐
 그덜 社主 |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숨미 이덜밧겨 나명들명
 쪼고밧간 잇기上座 | 네마리라 호리라
 귀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잔디 마티 덮거츠니 업다

드래우므레 그물길라 가고신 닐
 우뭇龍이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숨미 이우뭇밧겨 나명들명
 쪼고밧간 드레바가 네마리라 호리라
 귀자리에 나도자라 가리라
 귀잔디 마티 덮거츠니 업다

술풀지비 수물사라 가고신 닐
 그짓야미 내손모글 주여이다
 이말숨미 이집밧겨 나명들명
 쪼고밧간 식구비가 네마리라 호리라
 귀자리에 나도자라 가리라
 귀잔디 마티 덮거츠니 업다

上記 歌謠는 周知하는 바 高麗 忠烈王 때에 製作된 俗謠 〈雙花店〉이다. 이 歌謠에서는 性의 露出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귀자리에 나도 자라 가리라 귀잔디 마티 덮거츠니 업다」는 표현에서 보이는 混濁的 要素라든지 「回回아비」, 「社主」, 「龍」, 「술집 아비」들과 별이는 분방한 獵色行脚的 要素는 當時의 부패한 社會相을 如實히 반영함과 동시에 문란한 男女關係를 暴露하고 있다.

「獵色行脚하는 여인의 活動무대도 넓거니와 이를 상대하는 남자 群像들도 가지각색이다. … 同回 아비는 당시 高麗에 진주하고 있는 蒙古人을 상징한다. 外邦에 몸을 파는 여인이다. 다음의 三臟寺社主는 승려이다. 이미 불교가 세속화하여 승려까지 타락하고 말았다. … 세계聯의 <우물龍>은 王을 상징한 것이다. 平陽의 <술집 지아비>는 평민을 상징한다. 그러나 위로는 君主으로부터 아래는 常民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宗教界와 占領(까지 모두 遊女를 품에 안고 相悅하는 그 현상은 乾坤의 紊亂을 招來했음은 변한 일이다.]」²⁷⁾

張德順教授도 이렇게 論하였지만 이 노래에서 아주 強하게 풍기는 것은 性的 享樂主義的 色彩이다. 또 하나의 노래(滿殿春)에서도 肉體的 愉悅과 性的 渴望이 대담하게 그려져 있을 뿐만아니라 역시 獵色하는 行脚이 나타나 있다.

어름 우회 댕넵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리주글만평
어름 우회 댕넵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리주글만평
情든 오흐밤 너의 새오시라 더의 새오시라

耿耿孤枕上에 어느 지미 오리오
西窓은 여려 하니 擘花 | 護호두다
挑花는 시름업시 笑春風호는다 笑春風호는다

너시라도 님을 만디 너닛景 너기다니
너시라도 님을 만디 너닛景 너기다니
너기너시니 뉘너시니잇기 뉘리시니잇가

올라 올라 이런 비우하
어홀디 어피두고 소해 자라온나
소곳 일던 시환호 도호니 여홀도 도호니

南山에 자리보와 그 山을 비여누어
錦繡山 니분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南山에 자리보와 그 山을 비여누어
錦繡山 니분 안해 麝香각시를 아나누어
像든 기슴을 덧호옵사이다 맛호옵사이다

아소 님하 塵代가生애 여힐술 모르옵새

이에 대하여서도 張德順教授는

「애경의 교술보다는 유체적인 정열이 더 길게 표현되어 있다. 雙花店이 여인의 好色이라면 滿殿春은 남자의 好色이다. 풍만한 짓가슴은 맞네는 것으로 仁의 相悅의 絶頂을 그리고 있다. 이 노래의 四

27) 張德順 · 古典文學에 나타난 性 <月刊文學> 28號 p. 217.

聯은 퍼 우유키이런시도 性的 윤락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²⁸⁾

고 論하였다. 이 노래의 첫째 聯과 마지막 聯이 보여주는 情熱的인 性愛描寫는 實感을 느끼게 하고 第四聯에서는 性이 遊戱化까지도 되고 있다.

이와같이 高麗의 歌謠에서는 性이 瞬間的인 享樂의 道具로 化하고 있다. 古代歌謠에서 性을 神聖視한 것이나 三國의 歌謠에서 보는 自然主義的 性觀과는 다른 肉體主義的 性, 放蕩한 性을 본다. 濃艷하고 無節制한 性의 愉悅이 뚜렷이 浮刻되어 있다. 따라서 그 表現技巧面에 있어서도 官能的이고 刺戟的인 言辭를 거침없이 썼으며 淫猥하고 대담하게 性을 暴露하고 있는 것이다.

五. 時調와 性

高麗末에 懷古歌로 出發 成立한 時調文學은 朝鮮王朝에 들어와 積極的으로 育成 發達되었으며 이는 可謂 民族의 노래라고 할만큼 一般化되고 國文學의 中樞가 되다시피 하였다. 이 短型의 詩歌는 學識나 文化人의 教養物로서 뿐만아니라 널리 一般大衆의 生活感情까지 담는 그릇이었다. 時調의 作家는 君民으로부터 이름없는 遊女에 이르기까지 各階各層을 網羅하여 있다. 이렇게 널리 그리고 깊게 뿌리하여 발달한 時調는 다른 어떤 文學作品의 追從도 不許 하리만큼 質量的으로도 優勢하고 그 內容面에서도 多樣하다. 人倫, 勸戒, 頌祝, 貞操, 戀君, 慨世, 艷情, 離別 등 人間諸般事기 모두 時調의 主題로 採擇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周知하는 바와같이 李朝는 儒敎를 國是로 삼아 忠孝烈이 人間生活의 根幹을 이룬 社會였다. 每事에 人間 本來의 感情的인 면보다는 大義名分을 앞세우고 內容보다는 形式爲수가 되는 社會였다. 不事二君하는 것이 忠臣이요, 殺身の 孝道가 極讚되며 不更二夫하는 者에게 烈女稱을 게워주던 謹嚴한 性理學의 倫理는 李朝人의 日常生活 뿐만아니라 그 文學의 內容에 까지 巨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그리하여 그 大部分이 忠孝烈이 中心이 된 勸善懲惡的인 內容이었다. 따라서 男女의 性을 主題로 한 作品은 極少數였으며 그것도 正統的 陽性的으로 創作 傳來된 것이 아니라 陰性的으로 製作되고 隱蔽되어 傳하여 왔다. 性文學作品이 無名氏의 것이라든지 혹은 〈春香傳〉이 烈을 내세우고 〈卞卞傳〉이 民俗의 俗信을 便宜上의 主題로 내세운 가운데 熾烈하고도 노골적인 性 描寫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듯 道學의 倫理 道德이 強力히 支配하고 있던 李朝社會에서는 性은 罪惡과 결구되어 抑制가 美德이요, 따라서 여기 貞操迷信의 觀念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李朝文學의 代表的 장르라고 할 수 있는 時調文學에서는 性의 問題가 如何히 淸

28) Ibid.

급되고 있는가. 筆者는 이를 그 具體的 表現에서 찾아 보코자 한다.

鄭炳昱教授가 編한 <時調文學事典>에 收錄되어 있는 時調 二千三百拾六首中 우선 男女의 愛情을 主題로한 時調들을 가려뽑아 보았다. 그랬더니 全體의 약 四分의 一에 해당하는 무려 五百四拾餘首의 作品이 愛情詩歌였다. 다시 이 戀歌中에서 性愛를 다룬 作品, 性的 雰圍氣를 풍기거나 그쪽에 가까운 作品들 八十餘首를 뽑아내었다.

(1) 間接的 性象徴

이에 該當하는 時調는 性を 直接的 露骨的으로 表現하지는 않았으며 性的인 暗示를 하고 있는 노래들이다. 다시 말하면 詩語는 性이나 肉體에 接近된 用語를 使用하였으며 性 그것은 교묘히 隱蔽되어 있거나 혹은 表現이 迂廻되어 있어 性的 體臭가 밖으로 들어나지 않는 것이다.

多주스들 기나긴 밤을 한허리를 버혀내어
春風 니를 아래 서러서리 니헛다가
어른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피리라

이 時調는 저 유명한 黃眞伊의 作이리니와 <밤>, <허리>, <春風 니를> 등의 詩語는 分明 肉感的 雰圍氣를 內含하고 있는 言語이나 全體로는 은은하고 情趣 높은 戀歌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 時調는 肉體的 情熱의 노래를 精神的 戀歌의 境에 가까이 끌어올린 한 標本이 될 것이다.

담 흥회 우다하고 흥나 니러 가지마소
계 짚간 안자이서 소 흥회를 뜻고 가소
그담이 원네 늬이라 제어미 글여 그르히

<흥나 니러 가지마소>, <소 흥 회를 뜻고 가소>가 나타내는 은근한 誘惑의 말 또한 性的 暗示的 表現이라고 하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보다 性에 接近하는 노래로는 이런 것이 있다.

자다가 끼야본이 님의게서 片紙 왔다
百福남아 쳐보고 가슴 우회 언저분이
몹들이 묵이흔 안이되 가슴답담 흥어라

간밤에 몹도드니 임의게서 편지 왔네
그 편지 바다 뵈뵈이나 보고 가슴 우회 언저 잠을 드니
구티야 우겹치 아니히도 가슴 답담

〈가슴 우회 언지들이 名別이 묵업튼 안이되〉, 〈가슴 우회 언쇼 잠을 드니 구티야 무겁지 아니히도〉에서는 片紙가 곧 입의 化身이 되어 그 무게를 가늠하는 표현에서 醜穢 肉體的인 느낌이 난다.

金澤의 酒滴聲과 玉女의 解裙聲이
此兩聲之中에 어니 소래 더욱 조호리
아마도 月沈三更에 解裙聲인가 하노라

〈月沈三更의 解裙聲〉, 이는 迂廻된 官能의 極致的 表現이다. 조금도 不潔感을 느끼게 하지 않으면서도 바야흐로 벌어질 愛慾場面의 前兆로서 〈치마빚는 소리〉가 주는 新鮮한 느낌은 참으로 感覺的인 것이다. 性의 暗示的 表現도 이쯤되면 품격높은 한 〈벗〉의 境地에 도달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象徵的인 領域에서 차츰 벗어나는 時調로는 다음 같은 것들이 또 있다.

이몸이 석여져서 江界甲山 접이 되야
님자는 窓밖 춘희꽃마다 종종 조르 길을 지어두고
그집의 돈은체 하고 님의 房에 들리라

鄒련任 날 보러 糶계 百番남아 달니기를
高臺廣室 奴婢田畝 世間汗物을 주마 ㅈㅈ 盟誓 | 함머 大丈丈 | 철마 헛말 하라 이리저리 조
쫓겨나 至今에 三年이 나 蠹도루 百無一貫하고 ㅈㅈ마다 ㅈㅈ리니야 단잠만 ㅈㅈ오니
自今爲始하야 가기한 커이와 눈겨버 달회고 님을 빗죽하리라

웨 외쓸나 웨 와쓸나 나홀로 자는 방에 웨 와쓸나
오기는 ㅈㅈ이와 ㅈㅈ업시 잘 단녀가오
갓투에 말달코 달마는 집안에 모다깃병날하

〈님의 房에 들리라〉, 〈단잠만 ㅈㅈ오니〉, 〈ㅈㅈ업시 잘 단녀가오〉에서는 具體的은 아니로되 男女의 肉體的 通情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또 한 길음 나아간 것으로는

님을 보신 後에 黃昏은 ㅈㅈ일고
옷깃세 ㅈㅈ된 ㅈㅈ 分明한 님의 ㅈㅈ
다시금 타관금 퇴원침의 轉輾반칙 하여라

같은 것이 있다. 〈옷깃세 ㅈㅈ된 ㅈㅈ 分明한 님의 ㅈㅈ〉은 嗅覺的인 感覺이다. 입의 體臭가 옷에 남아있다는 것이니 肉體와 直結되는 表現이다.

너추리 너추리어 얼은자 박너추리야
이인 너추리완티 손을 주어 답을 넘는

우리도 새님 거러두고 손볼 출가 하노라

이름이 주어져서 무어시 되고 허니
春二月 東風이 되어 任의 浬의 들고지고
아마도 任과 東風은 一時戀 하노라

위의 두 時調에서는 그 感覺의 영역이 보다 擴大되어 있다. 〈손을 출가 하노라〉, 〈임의 浬의 들고지고〉는 肉體의 具體的 部分이 指摘된 것이다.

楚襄王은 무슴일르 人間樂事 다 바리고
巫山 十二峰에 雲雨夢만 생각는고
두어라 神女의 生涯는 이산인가 하노라

이 時調에서의 〈雲雨夢〉 또한 男女의 肉體的 情事를 뜻하는 것임은 말할 必帶도 없겠다.
이 외에도

於子兒 벗님네야 錦衣玉食을 자랑마쇼
죽이 棺에 들제 錦衣를 넘우려니 子孫에 祭밥을제 玉食을 먹으려니 죽은後 못헛 일은 粉壁紗
窓月三更에 고은님 다리고 向處歡樂함이로고나
죽은後 못헛 일이여니 아니하고 속절입시 늣으리요

千古離別 설운중에 누구누구 니 설운고
明妃나 楊貴妃와 項羽의 廣美人은 劍光에 노아나고 漢公十 丁昭감은 胡地에 地嫁하야 鴻禧被
鴻禧歌의 恨이 綠線하고 石崇의 金谷繁華로도 綠珠를 못잊엇기니
우리는 連理枝 並蒂花를 닮파 나와 깃기쥐고 元央枕 翡翠衾에 百年同樂하리라

나눈 마다 나눈 마다 錦衣玉食 나눈마다
죽이 棺에 들제 錦衣를 입으려니 子孫의 祭바들제 玉食을 먹으려니 죽은後 못헛일은 粉壁紗窓
月第更에 고은님 다리고 晝夜同枕하키로나
죽은後 못헛 일이니 사다 아니하고 뒤웃출가 하노라

에서의 〈고은님 다리고 向處歡樂〉, 〈元央枕 翡翠衾에 百年同樂〉, 〈晝夜同枕〉이라든가

이이 얼어잠이 고스 일 얼어잠이
鴛鴦枕 翡翠衾을 어되 두고 얼어자리
오늘은 춘비 맞자신이 죽어잠까 하노라

西色을 삼가란 말이 벗사름의 警戒모되
踏存登高岳에 벗님니 다리고 詩句를 읊플제 滿襟香醪를 아니 醉키 어리오리
旅館에 寒燵를 對坐여 獨不眠할세 玉人을 만나서 야니가그 이이리

하날천 서지더의 집우 집주 집을 싣고

날일씩 영창문을 달월쪽으로 거러두고
반중만 청춘님 피시오 별진 잘숙

조다가 세드르니 遠村의 늪이 운다
안고 다시 안아 서스랑 니엇거든
무숨일 東坡다리는 漸漸 불가 가느니

이갯밤도 혼자 곱송글여 새오줌 자고 진안밤도 혼자 곱송글여 새오줌 잔이
어이늬의 八字가 晝夜長常에 곱송글여서 새오줌만 잔다
오늘은 글이든님 왓신이 발을 퍼 불이고 쇠호환이 잘까 흥노라

에서 보이는 〈누아잘까 흥노라〉, 〈아니자고 어이리〉, 〈별진 잘숙〉, 〈아고 다시 안아〉, 〈쇠호환이 잘까 흥노라〉 등은 〈안다〉, 〈자다〉라는 어휘로 漸次 直接的인 描寫를 試圖하고 있다.

웃는 樣은 닛맛에도 조코 흘리는 樣은 눈꺼도 더욱 곱다
안서러 서거러 짓거라 듯거라 온갖 嬌態를 다 흥여라 히히히 내 思郎 되리코나
네 父姓 너 삼겨 니을세 날만 괴게 흥로다

위의 時調는 〈안거라 서거러 짓거라 듯거라 온갖 嬌態를 다 흥여라〉에서 性戲의 一 場面이 暗示된다. 〈春香傳〉의 情事場面에 바로 이와같은 描寫가 나오고 있다²⁹⁾.

다음으로는 間接的인 性象徵이긴 하되 猥淫的 묘사에 더 가까이 간 것늬이 있다. 말하자면 間接的이고 隱喻的인 노래와 直接的인 노래와의 中間的 位置를 占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늬이다.

민희늬 우러나나 흥의든님 가라흥너
이제 보네고도 반밤이나 남아시니
※라티 보내지 말고 남은 정을 퍼리라

에서 〈흥의 든 닛〉은 앞서의 〈품에 들고지고〉라는 願望의 形態에서 이제는 行爲가 이루어진 편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洞房半燭 三更에 窈窕傾城 玉人을 만나 이리코고 저리코고 듯쳐보코 닛기 보너 時分은 二八
이오 顏色은 挑化로다
黃金釵 白衫衫에 미 眸을 흘니뜨고 半開笑흥는 양이 오로 다 니사랑이로다
그맛기 吟詠歌聲과 衾衾嬌態야 닛러 무슴흥리오

粉黛紗窓 月三更에 傾國色에 佳人을 만나

29) 「여봐라 춘향아 저리 가거라 가는 테도를 보자 이만큼 오너라 오는 테도를 보자 뺨긋 웃고 아장 아장 걸어나 걷는 테도보자」 完版本〈春香傳〉에서.

翡翠衾 나소 굿고 琥珀枕 마조베고 잇마지 서로 즐기논 양 一双鸞鷲之遊 綠水之波欄이로다
楚襄王의 巫山仙女會를 부물 줄이 이시랴

에서의 〈衾裡嬌態〉나 〈翡翠衾 나소굿고 琥珀枕 마조베고〉의 表現은 〈同處歡樂〉, 〈百年同樂〉, 〈晝夜同枕〉 등의 表現처럼 抽象的이 아니며 黃眞伊의 〈春風 이불〉과는 이미 상당한 거리를 가진다.

閔氏니 손복을 취니 당깃당깃 웃논고나
엇기너머 등 글그니 곁곁 나스 나를 일네
저任하 나스노지마쇼 가슴衙衙 하야리

들입셔 보드득 안운이 당깃낭긔 웃논고아
억세넘이 등운 글근이 漸漸나사 나를 안네
저넙아 하 곤곤이 안지말아 가슴답답 하여타

이들 時調는 앞서 입에게서 온 편지를 가슴에 얹었던 暗示的 表現에서 직접 男女가 抱擁하는 선명한 묘사로 나아갔다.

高臺殿室 나논 마다 錦衣玉食 더욱 나디
銀金貨貨 奴婢白宅 緋緋치마 六緞장옷 密羅珠 것칼 紫芝鄉織 저고리 석머리 石堆黃으로 다
자디 시고

眞眞로 나의 평생 願하기는 말 잘하고 글 잘하고 얼굴 키자하고 품자리 잘하논 저문 書房이로디

고소리 닷단 제醬 짝이먹고 물업순 岡川에 온라
야구리 복발나 물 다구 하들 이니 歡陽의 셨년이 될 물 떠나 슈리 아아 아아 아아 아아하
밤口中만 閔氏네 품에 들면 冷水기물이 입세라

니는 미나 너는 마다 高臺殿室 너는 마다
奴婢山宅 大緞長옷 緋緋치마 紫芝香織저고리 蜜花珠 것칼 석 머리 石堆黃 옥오다 쓰러 꿈이로다
나의 願하논 바는 키크고 얼굴 곱고 글 잘하고 말 잘하고 노래웁코 즐잔추고 환잘쓰고 바꿀두
고 품자리 더욱 알드리 잘하논 白馬金鞭의 風流郎인가 하노라

長衫 쓰러 중의적삼 짓고 念珠 쓰러 당나귀 밀밀치하고
釋干世界 極樂世界 觀世音菩薩 南無阿彌陀佛 十年工夫도 니 갈티로 니거
밭중단 安居士의 품에 드니 念佛경이 없세라

위에서 〈품자리 잘하논〉, 〈閔氏네 품에 들면〉, 〈품자리 더욱 알드리 잘 하논〉, 〈안居士의 품에 드니〉, 등의 표현은 〈雲雨夢〉과 같은 引用, 暗喻的인 것에서 훨씬 露骨化된 表現이다.

술먹고 醉한 後의 얼음상의 춘 승녕과

새배 님 가려거든 **고쳐** **안고** **잡든** **맛과**
世間의 이 두 滋味는 **놈**이 **알**가 **호**노라

燈臺도 불 그무려 **감**져 **窓**현³⁰집고 **드**는³¹님과
五更鍾 나리슬게 **다**시 **안고** **잡**는 **놈**을
아무리 **시**쌍이 **塵**土(**되**든 **너**를 **잡**는 **놈**이 **이**시라

간빔에 이리저리 **술**제 **기** **누**라서 **아**똥³²던고
鸚鵡의 **말**이런지 **杜**鵑의 **虛**辭³³런지
니 **쌈**에 **粉**이 **제**제 **무**더³⁴간가 **호**노라

〈새배 님 가려거든 고쳐안고 잡든 맛〉은 〈또 혼쾌를 듯고가소〉보다, 〈다시 안고 잡는 놈을〉은 〈안고 다시 안아〉보다, 그리고 〈니 쌈에 粉이 제제 무더간가 호노라〉는 〈웃깃세 낫친 힘디 分明한 님의 혼격〉보다 훨씬 肉感的이다.

각시니 玉又든 가슴을 어이 구려 다혀 불고
線紉紫芝 작겨구려 속에 **김**력³⁵삼 **안**섭³⁶히 되어 **존**득³⁷존³⁸득 **대**히고 **지**고
있다³⁹감 **습**나 **붓**닐⁴⁰제 **셔**힐 **누**를 **모**르⁴¹리라

새악시 **꼴**房 **못**마자 **애**쁘다가 **주**근 **靈**魂
전삼⁴²빗 **죽**삼⁴³되야 **龍**門⁴⁴山 **開**骨⁴⁵寺에 **나**싸⁴⁶긴 **들**은 **충**놈⁴⁷들 **피**나 **되**얏⁴⁸다가
있다⁴⁹감 **습**나 **마**려⁵⁰온⁵¹제 **슬**르⁵²거 **불**까 **호**노라

위의 두 首 時調에서 살펴보면 前者는 女人의 肉體를 渴望하는 男性의 要求가 麗謠의 〈滿殿春〉에서와 흡사히 나타나 있다. 〈김력삼 안섭히 되어 존득존득 대히고지고〉는 그러한 性的 渴望의 感覺的 表現이다. 後者는 女性이 男性을 願하는 것으로 男根崇拜의 巫俗信仰과 一脈相通하는 바가 있다. 우리나라 江原道 江陵에 있는 海娘祠라는 祠堂도 男根崇拜思想과 관계되어 지어졌다는 傳說³⁰⁾이 있거니와 〈늘근 충놈들 피나 되얏다가……슬써겨불까 호노라〉의 直說的인 表現은 直接的 性表現에 近接하여 있다.

南山에 **늘**닐리는 양은 **白**鶴⁵³의 **당**도⁵⁴는⁵⁵듯
漢江에 **비**즌 양은 **江**城 **무**름이 **고**기를 **물**고 **넘**노⁵⁶는⁵⁷듯
우리도 **님**의⁵⁸님 **겨**려⁵⁹두고 **넘**노⁶⁰라⁶¹불⁶²까 **호**노라

東海龍과 北海龍 두리 **單**如意⁶³를 **닷**토⁶⁴는⁶⁵되
無心⁶⁶한 **猛**虎⁶⁷야 **너**는 **어**이 **넘**노⁶⁸는⁶⁹다

30) 「오직 작사당으로 죽어간 처녀의 祠堂에다가 男根의 形態를 한 제물을 놓고 제사하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는 俗信이 漁村에 남아 있다. 江原道 江陵에 있는 海娘祠는 이번 연구에서 세워진 祠堂이다.」 張德順:〈韓國說話文學研究〉 p. 271.

우리도 남의뉘 거러두고 녀노리 불가 흥노라

벽은갑이라 흥놀로 놀며 두더취라 사호프 들라
금종달이 鐵網에 걸려 풀떡풀떡 보드득이니 놀다귤다 네 어드로 갈다.
우리도 새님 거러두고 풀더겨 불가 흥노라

속적우리 고은 쏘치마 밋머리에 粉飾인 關氏
잇그계 날 소기고 어비가 또 놀을 소길러 흥고
夕陽에 柯柯 것거취고 가는 허리를 조늑조늑 흥는다

尙的了흥 換陽의 蓀년 紫의 粉옷을 빗쳐 바릴년아
잇그계 날 속이고 또 놀마조 속이려 흥고
夕陽에 々々단 허리를 환들환들 흥느니

기름에 지진 糝藥菓도 아니먹는 날은 冷水에 飢餓 頭들 먹으라 지근
구嬢女 姪년들도 아니흥는 날은 關氏님이 흥자고 지근지근
아무리 지근지근 흥들 풀어줄르줄 이시라

앞서의 〈안거라 서거러 것거라 뜻거라〉式的 性戲表現도 이들 時調에서는 〈년노리 불가 흥노라〉, 〈풀더겨 불가 흥노라〉, 〈허리를 조늑조늑 흥는다〉, 〈허리를 환들환들 흥느니〉, 〈關氏님이 흥자고 지근지근〉 등 行爲와 技巧를 具體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겸하여 竹의 代喩的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 作品들도 있다.

窓밖게 네 뉘 오시고 小僧이 울쇼이다
어쩔 제네에 老嫗보라 왔든 흥이외런니 關氏네 조는房 族道里 버셔거는 말것히 이니 松絡을 걸고 ㄴ자 왔내
머쭈아 걸기논 걸고갈디지리도 後ㄴ말 일시 흥시쇼

나는 指南石이런가 關氏네들은 닐반을 인지
안조도 붓고 서도 쏘르고 누위도 붓고 흥셔도 사과와 안이 씨기진다
旣憊이 不調한 분네들은 指南石 날바늘을 달려 日再服을 흥시쇼

9호 시 뉘 오시고 건너 佛堂에 등녕僧이오런이
훈居師 훈고 자읍는 房에 무슴것 놀아 와 제오신고
훈居師님의 노감탁이 머시 긴은 말것되 내 웃갈 내시 걸라 왔습네

이들 時調에서는 女性은 〈족도리〉, 〈날바늘〉, 〈곳갈〉로, 男性은 〈松絡〉, 〈指南石〉, 〈노감탁〉 등 각기 男女와 관계있는 물건들로 代喩되고 있다. 그래서 그 행위나 情事의 표현에서도 〈關氏네 조는房 族道里 버셔거는 말것히 이네 松絡을 걸고 ㄴ자 왔내〉라든가 〈안조도 붓

고 서도 수련고 누워도 붓고 솜셔도 싸라와 안이 썩러진다), 〈홀居士님의 노감탁이 써서건은 말 것되 내 곳갈 비서 질라 왓습네〉 등 重意의 修辭가 나타나 있다.

(2) 直接的 性象徵

직접적으로 性을 主題로 하거나 묘사한 一群의 時調들은 显的인 面에서는 그리 많은 것이 못되나 그 表現面에서는 대단히 露骨的이요, 자극적이다. 男女의 象徴이 매우 寫實的이며 行爲의 묘사 역시 능후한 官能의 饗宴, 肉體的 亂舞의 境에까지 이쁘르고 있다.

드림디 번득 안으니 세허리마 즈늬스늬
紅袋을 거두지니 雪膺之豊肥하고 學脚踞坐하니 半閒한 紅牧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遊遊고 又退退하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향노라

이 時調는 그중에도 가장 노골적이고 直接的으로 性이 描寫된 例이다. 이 時調의 표현은 우리 古典文學에서도 性文學의 代表的 作品이라고 일컬리우는 〈가강취전〉에서의 性묘사외³¹⁾ 彷彿하다. 實로 아연히리만큼 대담한 表現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鐵이 鐵이라커늘 鐵鐵만 너겨뼈니
이세야 보아하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블무 있던니 너겨볼가 향노라

玉이 玉이라커늘 燐玉만 너겨써니
이세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적실하나
내세 솔송곳 있던니 추러볼가 향노라

上記 二首의 時調는 李朝 宣祖朝의 宰相을 지냈고 歌辭의 大家였던 松江, 名實共히 高官 大爵이며 선비 文學人으로서 兩班階級을 代表한다고 할 수 있는 鄭澈이 그의 愛人인 眞玉이라는 妓生과 對作하였던 詩이다. 이 時調들은 重義的인 描寫를 하여 놀라운 詩作技法의 妙를 보여주고 있어 세련된 그 寸씨에도 驚歎을 금치 못하게 하거나와 한층더 驚愕과 哄笑을 금치 못하게 하는 것은 〈솔송곳〉이니 〈골블무〉니 하는 男根과 女根象徴이다. 〈추러볼가 향노라〉, 〈너겨볼가 향노라〉하고 거침없이 暴露한 表現에서도 李朝의 소위 兩班들이 防牌처럼 내세웠던 〈점잖음〉과 〈戒嚴〉에 拘礙받은 痕跡은 秋毫도 없다.

以上 直接的 性象徴의 몇 개 標本을 뽑아보았거니와 以下에 約 三十餘首의 作品에서서 分類한 具體의 表現을 例示하고 간단한 說明을 附錄하겠다.

31) 「여 XX자 번듯 듣고 王門關을 들어다보며 이상이도 생겼다. 맹망이도 생겼다. 늙은 양의 입일런지 X은 들고 이는 엷다. 소나기를 맞았던지 인덕지게 파이었다. 콩밭 팔밭 지내던지 등무꽃이 비추었다...」 가루지기打令 〈韓國古典文學全集〉第一卷 p.217.

① 男性象徵

- 연장³²⁾37)43)44)
- 黃毛筆³³⁾34)35)
- 빙거지 쓴 뽕³⁶⁾
- 응도라지³⁷⁾
- 鐵³⁸⁾
- 쇼실당³⁹⁾
- 즈르³⁹⁾
- 뷔⁴⁰⁾
- 방망치⁴⁰⁾
- 홍도개⁴⁰⁾
- 물레⁴⁰⁾
- 도레콧지⁴⁰⁾

- 32) 石崇의 累鉅萬財와 杜牧之의 橋滿車 風采라도
 박입을 활저기 제 연장 零토했던 슬자리만 자티라 의 무시시 貴홀쇼나
 貧乏코 風渡 埋沒홀지라도 제거시 무릅하여 내섯과 如合符節 긋 할면 의 내님인가 호노라
- 33) 黃毛筆 半同만 풀고 首陽梅月 그음벼 적어
 楚竹植梅는 글일씨는 울키이의
 저님이 뜨는 탓으로 글어 살리 호는이
- 34) ♀자 내 黃毛試筆 墨을 못쳐 窓빛기 디거코
 이제 도라기면 어늘뵈 잇진마는
 아모나 어더 기다서 그러보던 알리라
- 35) ♀자 나 쓰년 피黃毛筆을 首陽梅月은 흠벼 지거
 窓前에 언짓더니 맥티날 구으리 쪽 니려지거코
 이제 도라기면 어늘뵈 잇진마는 아모나 어더 가져서 그러보던 알리라
- 36) 밋남긴 그놈 紫聰빙거지 쓴놈
 소타出厙 그놈은 샷빙거지 쓴놈 그놈 밋남긴 그놈 紫聰빙거지 쓴놈은 타 빈 눈에 정어이로되
 半中만 샷빙거지 쓴놈 보던 실뵈 본뜻 하여다
- 37) 白華山 上上頭에 落落長松 휘어긴 柯枝 우리
 부인 放氣 현 殊常한 응도라지 길족 넘죽 이늘너들 퇴몽슈던 호서라 달고 님의 인정이 그리코라자
 眞低코 그어곳 홀작시며 빛고 靑물진늘 성이 뜨습 기석리?
- 38) 鐵이 鐵이라커늘 筭鐵민 너겨써니
 이제야 보아하니 正鐵일시 분명하다
 내게 골발브 잇던니 뇌겨분가 호노리
- 39) 내 쇼실당 일히 불여지가 오늘날소차 春二作이 오련이
 鶴輿되피 聞傳호이 關氏네 房구식의 서잇느리 호대
 柯枝나 나 쓰쳐 쓸일야도 조그 날일 擘영이나 본애세
- 40) 밋남긴 版州 | 쓰리뷔장스 쇼내뉘런 朔寧 님뷔장스
 눈경에 기른 님은 桴桴 뉘두려 빙담치장스 팔호코 가나 홍도개장스 뵈빙 도라 물레장스 우물전에
 치드라 擘擘 호다가 워빙충창 풍 빠디 물 돕부 써네는 드레콧지장스
 어티가 이 열골 가지코 杓擘장스들 붓어드리

- 조리⁴⁰⁾
- 솔송곳⁴¹⁾
- 7래⁴⁴⁾⁴⁵⁾
- 장기⁴⁶⁾
- 퇴강오리 목⁴⁷⁾
- 송낙⁴⁸⁾
- 長衫⁴⁸⁾
- 꽃간⁴⁹⁾
- 북⁵⁰⁾
- 杖鼓⁵⁰⁾
- 瓦冶 스늬의 아들⁵⁷⁾
- 두더귀 伶息⁵⁷⁾

- 41) 玉이 玉이라커늘 燦玉만 너저미니
이제야 보아하니 眞玉일시 적실하다
내게 솔송곳 잇던니 쭈러물가 향노라
- 42) 드립더 번두 안으니 세려리갸 즈늬즈늬
紅裳을 거두치니 琴窟之豊肥하고 學脚 躡坐하니 半開한 紅牡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道進코又退退하니 茂林山中에 水聲인가 향노라
- 43) 얹고 껌고 퉁큰 구레나룻 그것조차 길코 넘다
잡지아 닌 늬 밤바다 빈에 올라 조그만 구멍에 큰 연장 너허 두고 흥근할적 흥재는 愛情은 哭니
와 泰山이 넘누르듯 존 放氣 소리에 경머던 힘이 다 쓰이노리라
아므나 이늬를 느리다가 百年同住하고 永永 아니온들 어니 개짚년이 석앗새운 향리오
- 44) 閻氏니 되오려 눈이 유도 만코 걸다 향덕
併作을 누려 향거던 燃匠 도흔 날을 眞少
아아 아아아 아하 아아
眞寶로 眞기곳 眞량이면 7리들고 眞디어 불기가 향노라
- 45) 閻氏내 외밤이 늬이 물도 반코 거다 향례
併作을 줄여커든 밋안은 날을 주음소
眞寶로 줄여글 향기든 갈애들고 씨지워불까 향노라
- 46) 잔손뼉 언덕 아하 眞추갓은 고리실은
밤바다 장기에여 씨더지고 날을 슈니
두이라 자기 띠득이니 他人並作 붓향리라
- 47) 언덕 眞희어 조흔길 배오거라 말고
두더이나 부희어 너른 구멍 조피니아 水口門 내드라 眞毛浦 漢江 露梁 銅雀이 龍山 三浦 익홀목
으로 돈니네 누리 두져먹고 기우져먹는 퇴강오리 목이 힘금커라 말고 大牧官 女妓 小名官 眞탕이
외낭당 내드라 두 손으르 붓갓고 부드드 서논 이네 그스저기나 힘금코라자
眞寶인 서러곳 眞자서던 眞夫(될가 향노라
- 48) 眞늬도 사름이양 향여 자고가니 그림늬고
眞의 송낙 나 배음고 내 眞족도리 眞늬 배고 眞의 長衫 나 딛슈고 내 치마란 眞늬 덩고 자다가 씨
드르니 眞희 眞탕이 眞낙으로 하나 眞족도리로 하나
이든날 향던일 眞각하니 眞금향갈 향여라
- 49) 眞과 眞과 眞盤山中에 맛나 어드러로 가오

- 沙工의 威伶⁵⁷⁾
- 닳겼고리⁵⁸⁾
- 도사공⁵⁸⁾
- 벼복불⁵⁸⁾
- 빅지 당⁵⁸⁾
- 흙너출⁶⁰⁾
- 낙점의⁶⁰⁾
- 華榴^등⁶³⁾

② 女性象徴

- 골불무³⁸⁾
- 굴영(구녕)³⁹⁾⁴³⁾⁴⁷⁾
- 玉⁴¹⁾
- 紅牡丹⁴²⁾
- 茂林山中⁴²⁾
- 퇴오려 눈⁴⁴⁾

-
- 어드러르 오시는게 山쪽으로 물 좇흔되 감싸를 부쳐보오 두 곳같이 혼되 다하 니픈너픈 ㅎ는 樣은
 白牡丹 누 퍼키기 春風에 휘듯는 듯
 암아도 深山에 이 설유은 ㅎ과 儼과 늘 뿐이라
- 50) 저닐어 석앗슬 두고 손색치며 애써간이
 말반호 샷갓짐의 흰 디석 필쳐 덩고 년놈이 혼되 누어 얼지고 들어졌다. 이제는 얼이복이 叛奴軍
 에 들기곤아
 두어라 모뎃썩에 두 枚鼓를 말려 무슨 ㅎ리요.
- 51) 世上衣服 手品制度 針線高下 다도 ㅎ다
 涼纈緋 두육쓰기 上劍 ㅎ기 작금질과 서발슈침 감친질과 半唐劍 大을쓰기 다 듯타 니브런니와
 우리의 고은님 일근등 지도 삼쓰고 박음길이 커 第 一인 ㅎ노라
- 52) 어되 차고 여겨른 왔노 平壤차고 여겨 왔니
 臨津 大同江을 건너 비로 건너 왔노
 船價는 밀터라나는 女妓비 타고 건너 왔니
- 53) 새아氏 석집 긴날 밤의 길방글이 매잇슬 쉼여불이온이
 석이마늬이 이를 물라드라 ㅎ는고야 머슴이 對答 ㅎ되 석염의 아들놈이 울이깃 全羅 慶尙道로셔
 會寧 鍾城 다회근 못쓰게 썩어어 괴룻첫신이
 달고 빅어 보와도 兩邊將 ㅎ외 ㅎ노라
- 54) 半여든개 칫 제집을 ㅎ니 어렷두렷 우벽주벽
 주글년 살년 ㅎ나가 와당담 드리다라 이리저리 ㅎ니 老都令의 ㅅ음 흥글항달
 眞寶로 이 滋味 아똥년들 권적부디 즐랐다
- 55) 청운키 녹늘 메토리 신고 휘메 長衫 두루해 메고
 潞湘遊竹 열 누 머뎃를 불희세 세지집고 머르너머 재너머 들건너 번선니 靑山右逕으로 鴉근누은
 누은깃근등 너머 가운거늘 보은가 못 보은가 귀 우리 난편 禪師 ㅎ이
 누이셔 ㅎ이라 ㅎ여도 밤중만 ㅎ여셔 古人又은 기슴 우회 슈박스든 머리들 등글썩썩 썩썩등글 등
 굴등실 등글러 귀여 올라 울겨피는 내사 抄해 ㅎ書房이

- 외밭이 놀⁴⁵⁾
- 굴죽갓튼 고리실⁴⁶⁾
- 족도리⁴⁸⁾
- 치마⁴⁸⁾
- 곳갈⁴⁹⁾
- 叛奴軍⁵⁰⁾
- 모땀섞⁵⁰⁾
- 벼⁵²⁾
- 고양깁⁵⁸⁾
- 대등절⁵⁸⁾
- 관악산⁵⁸⁾
- 관동 판면⁵⁸⁾
- 오리넝⁶⁰⁾
- 남의⁶⁰⁾
- 들짐 腹板⁶³⁾
- 년⁶⁴⁾

③ 行爲의 象徵

- 제저시 무릅하여 내것과 如合符節 곳 하면³²⁾
- 뇌겨볼가 흐노라³⁸⁾
- 흐르늘일³⁹⁾
- 쭈뼛 쭈두러⁴⁰⁾
- 놀호로 가나⁴⁰⁾
- 빙빙 도라⁴⁰⁾
- 근냉근냉 흐다가 워립중창 풍 빠져 물 뭍복 셔내논⁴⁰⁾
- 쭈러볼가⁴¹⁾
- 드립터 닳늬 안으니 세허러? 조늬조늬⁴²⁾
- 擧脚蹲坐 흥니⁴²⁾

56) 關氏네 더위들 수시오 일론 더위 느즌 더위

五六月 伏더위에 衾의 넝 만나이셔 달밝은 4床우회 촌촌감계 누엇다가 무음 일 흥였던지 五腸이 煩熱하고 구슬심 흘니면서 絊絊이던 그 더위와 冬全할 긴긴 밤의 고은넝 다리고 다스호 아름목과 뜻기온 나불 속의 두 몸이 혼몸 되야 그리져려 흥니 手足이 답답하며 목궁이 타올적의 웃목의 찬 속용을 絊絊 絊絊絊絊 거난 더위를 關氏네 사려겨튼 소견터로 스오시쇼
 냥스야 네 더위 어덧중의 넝 만나논 두 더위야 워아니 조아허리 남의게 파지 밀고 넝게 부더 파 토시쇼

- 進進코 又退退하니⁴²⁾
- 밖에 올라 쪼고만 구멍에 큰 일장 너허두고 흘근할적⁴³⁾
- ㄹ리들고 ㄷ디여 불기가 하노라⁴⁴⁾⁴⁵⁾
- 장기메여 씨더지고 물을 주니⁴⁶⁾
- 와당탕 내드라 두손으로 붓잡고 부드드 셔는⁴⁷⁾
- 느리 두저먹고 치두져 먹는⁴⁷⁾
- 중의 송낙 나 베읍고 내 쪽도리 중놈 베고 중의 長衫 나 덤습고 내 치마란 중놈 덤고⁴⁸⁾
- 두 곳갈이 혼되 다하 너픈너픈 하는 樣은 白牧丹 두 퍼귀가 春風에 휘트는듯⁴⁹⁾
- 썰음⁴⁹⁾
- 얽지고 틀어졌다⁵⁰⁾
- 얼이복이 叛奴軍에 들거곤아⁵⁰⁾
- 모닐썩에 두 杖鼓를⁵⁰⁾
- 살쓰고 박음질⁵¹⁾
- 女妓빅 ㅿ고⁵²⁾
- 질방글이 대엿슬 쏠여볼이온이⁵³⁾
- 尙寧 鍾城 다희를 못쓰게 풀어어 괴릇졌신이⁵³⁾
-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하니⁵⁴⁾
- 玉人又튼 가슴 우회 슈박又튼 버리를 동글썩 썩 동골뽕글 동골뽕실 동굴러 기여 올라
올저거는⁵⁵⁾
- 平床 우회 촛촛감계 누엇다가 부읍일 하엿던지 五腸이 煩熱하고 구슬쌘 흘니면서 혈
썩이던⁵⁶⁾

57) 간밤에 쪼고간 그놈 암아도 못니즘다

瓦浴스눔의 아플인지 존홈에 썸네티듯시 부더퀴 伶憊인지 극극기 되지듯시 沙丁의 成伶인지 沙樂의
질으듯시 卍坐에 저음이오 凶兇이도 야드제라
前後에 나도 무닌이 겨거시되 參盟할 간밤 그놈은 참아 못니즘새 하노라

58) 각시님 뽀러눔쇼 내뽀의 안기리

이 이히눔 패심하니 네 날을 악을쇼나 각시님 그말 마쇼 도고만 닷졌고리 크나쁜 고잉감커 썩썩
도라가며 제혼차 다 안거든 내 자넨 못안올가 이 아히눔 세심하니 네 날을 휘올쇼나 각시님 그말
마쇼 노고만 도샤풍이 크나쁜 대등신을 제 혼자 다 휘우거든 내 자넨 못휘올가 이 이히눔 패심하
니 네 날을 붓홀쇼나 각시님 그말 마쇼 도고만 벼목 발이 니러곳 나게되면 淸제라 편약산을 제홀
주 다 갖거든 내 자넨 못볼가 이 아히눔 패심하니 네 날을 그늘을쇼나 각시님 그말 마쇼 도고
만 뽀지당이 관뽀 뽀뽀를 제혼차 다 그늘오거든 내 자넨 못그늘올가
진실로 네 뽀 ㅿ들작시면 뽀년 동썩하리라

59) 니르랴 보자 니르랴 보자 내 아니 니르랴 네 남진드려

거웃기스로 뽀긋는 제하고 뽀으란 느리와 우뽀전에 노코 썩아리 버서 통조지에 질고 건넌집 차근
金書房을 눈기야 불러내여 두 손뽀 마조 넘셔취고 슈근슈근 말하다가 삼뽀트로 드러가셔 므스일
하던지 존삼은 썩러지고 꺾근삼대 뽀뽀 나마 우썩우썩 하더티 하고 내 아니 니르랴 내 남진다벼
져 아희 입이 보도라와 거웃말 마사스타

- 다스훈 아름답과 듯가온 니불 속의 두 몸이 혼뎀되야 그리저리 흐니⁵⁶⁾
- 존흙에 썸니듯시⁵⁷⁾
- 국국기 뉘지듯시⁵⁷⁾
- 沙禦적 질으듯시⁵⁷⁾
- 붓흙소나⁵⁸⁾
- 존삼은 브러지고 불근 삼대 빗만 나마 우쭈우쭈 흐더라⁵⁹⁾
- 낙검의 남의 감듯 일이로 존존 결이로 존존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얼거져 풀어져 빗뵈 디 닳까지 쏘곰도 뵈름업시 찬찬 굽의나게 휘휘 감겨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있셔⁶⁰⁾
- 샷대혀 보으쇼 잘 붓습느니⁶¹⁾
- 每樣 샷셔자 흐오리⁶²⁾
- 因緣진 부레풀로 時運지게 붓젧신이⁶³⁾
- 토김북 잘밧는⁶⁴⁾

以上에서 보던 우선 男女의 性象徵에서는 첫째로 性的 象形的인 것이 있다. 예컨대 〈黃毛筆〉, 〈명거지 쓴 놈〉, 〈용도라지〉, 〈조르〉, 〈뵈〉, 〈방망치〉, 〈홍도깨〉, 〈드레꼭지〉, 〈솔송곳〉, 〈퇴강오리목〉, 〈굽영〉, 〈紅모란〉, 〈茂林山中〉, 〈굴죽같은 고비실〉, 〈모닐떡〉 등이 이런 류에 속한다고 보겠다.

둘째로 行爲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다. 〈연장〉, 〈쇼실랑〉, 〈물레〉, 〈조피〉, 〈그릭〉, 〈장기〉, 〈북〉, 〈장고〉, 〈瓦治스놈의 아들〉, 〈두더취 伶息〉, 〈沙工의 成伶〉, 〈퇴강오리목〉, 〈닷젧고리〉, 〈도샤공〉, 〈썸니출〉, 〈낙검의〉, 〈玉〉, 〈논〉, 〈대동진〉, 〈넢〉 등이 이에 속한다.

우리는 ㅁ을 지서미라 실삼 쏘곰 키더이다

- 60) 님으단 淮陽金城 오리넵기 되고 나눈 三四月 썸너출이 되야
 그 님게 그 썸이 낙검의 남의 감듯 일이로 존존 결이로 존존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얼거져 풀어져
 빗뵈터 닳까지 쏘곰도 뵈름업시 찬찬 굽의나게 휘휘 감겨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있셔
 多섯썸 바람비 눈설이를 압으단 맛즌들 실어질썸 이설야
- 61) 툃들에 니모든 사오 겨 장스야 네나모 감시 언네 웨노다 사자
 ㅁ리남게논 흘뵈치고 검부남게논 닳뵈를 쳐서 ㅁㅎ야 ㅁ면 마뵈뵈 밧습니 샷대혀 보으쇼 잘 붓습
 느니
 ㅎ적긧 사썸히 보뵈는 리양 사썸히자 ㅎ리라
- 62) 툃들에 잠잇 등피 사오서 장스야 네 등피 잠 몇모나가니 사카라 보자
 두피 쓴 등피 흘피 밧썸네 호피이 붓썸이 ㅁ피 밧소 ㅁ피 안이 밧썸네 하 우은말 미소
 ㅎ적긧 샷셔라 보설언 每樣 샷셔자 흐오리
- 63) 내 가슴 들썸 腹板되고 님의 가슴 華榴능 되야
 因緣진 부레풀로 時運지게 붓젧신이
 압으리 석썸 長霖석들 썸어질썸 이시라
- 64) 석오리라 석오리라 세빅사 녹모열네 당쭈강아 석오리라
 반공 운무썸에 썸엿쇼나 구머리 장군에 흥농화 긴코
 그썸에 뵈거리 잇고 말잘뵈고 토김북 잘밧는 ㅁ은 니열인가

세 세로는 〈송낙〉, 〈꿇갈〉, 〈노감낙〉, 〈족도리〉, 〈長衫〉, 〈치미〉 등 衣冠과 관련시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다.

기타 〈鐵〉, 〈비록물〉, 〈빅지당〉, 〈華櫛등〉, 〈叛奴軍〉, 〈고양감〉, 〈판악산〉, 〈관동판면〉, 〈오리남〉, 〈남의〉, 〈들중腹板〉 등도 前後의 雰圍氣와 描寫에 相應하여 빌어온 象徴들이다.

行爲의 表現에서는 交合場面の 直說의이고 濃艷한 表現과 比喩的인 表現으로 大別하여 분수 있다. 〈계기시 무중하여 내것과 如合符節 꿇 하면〉, 〈쭈쭈 쭈두려〉, 〈돌호로 가마〉, 〈빙빌 도라〉, 〈근녕근맹 하다가 워령총창 품 빠져 물 듬북 썬내논〉, 〈쭈러불가〉, 〈드립더 번득 안으니 세허리마 조늬조늬〉, 〈學脚蹲坐하니〉, 〈進進코 又退退하니〉, 〈비에 올라 초고반 구멍에 큰 언장 너히두고 흘근할적〉, 〈와당탕 내드라 두손으로 붓잡고 부드드 썬논〉, 〈엷지고 틀어졌다〉, 〈女妓비 타고〉, 〈玉人又튼 가슴 우회 슈박又튼 머리물 둥글썬썬 썬썬둥글 둥글 둥실 둥글러 피여올라 올려기논〉, 〈平床 우회 촌촌 감게 누었다가 무음일 하하였던지 五腸이 煩熱하고 구슬썬 흘니면서 혈떡이넌〉, 〈다스흔 아롬북과 돛가온 니불 속의 두 목이 흘뭇되야 그리저리 하니〉, 〈붓홀소냐〉, 〈낙검의 남의 감듯 일리로 촌촌 결이로 촌촌 외오 풀러 울히 잡아 얼기저 풀어져 밋뭇터 썬까지 조꿈도 빈틈업시 찬찬 굶의나게 휘휘 감겨 晝夜長常 뒤트러져 감겨있서〉, 〈샷대혀 보오소 살 붓습느니〉, 〈每樣 샷사자 호오리〉 등은 前者에 屬하고 〈뇌겨불가 호노라〉, 〈조르들일〉, 〈구리들고 씨디여 불기가 호노라〉, 〈장기메어 씨더지고 물을 주니〉, 〈중의 송낙 나 베움고 내 족도리 중늬 베고 중의 長衫 나 덩습고 내 치마란 중늬 딛고〉, 〈느리두져 먹고 치두져 먹논〉, 〈두 꿇갈이 흘되 다하 너픈너픈 하는 樣은 白牧丹 두 퍼기가 春風에 휘뭇는듯〉, 〈썬음〉, 〈얼이북이 叛奴軍에 들거곤아〉, 〈모빌떡에 두 杖鼓를〉, 〈살쓰고 박음질〉, 〈질방굴이 대엿슬 썬어붙이온이〉, 〈社寧 鍾城 다회를 못쓰게 썬어어 괴뭇섯신이〉,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하니〉, 〈촌흙에 뽀뭇뭇시〉, 〈국국기 뒤지뭇시〉, 〈沙禦히 길으뭇시〉, 〈조삼은 쓰러지고 굴근 삼대 썬만 나마 우즙우즙 하더라〉, 〈因緣진 부레플로 時連지게 붓장신이〉, 〈토김톡 잘밧는〉 등은 後者에 屬하는 類이다.

直說의 行爲描寫는 다시 더 敷衍을 要하지도 않겠으나 거기 興味로운 修辭法은 〈샷대혀 보오소〉나 〈每樣 샷사자호오리〉에서 보이는 聲音의 二重效果를 노린 重意法이다.

後者에 屬하는 行爲描寫에서는 〈구리들고 씨디여 불기가 호노리〉, 〈장기 메어 씨더지고 물을 주니〉 하는 農耕生活과 관련된 表現을 비롯하여 〈두 꿇갈이 흘되 다하 너픈너픈 하는 樣은 白牧丹 두 퍼기가 春風에 휘뭇는듯〉, 〈조삼은 쓰러지고 굴근 삼대 썬만 나마 우즙우즙 하더라〉, 〈중의 송낙 나 베움고 내 족도리 중늬 베고〉, 〈느리두져 먹고 치두져 먹논〉, 〈썬음〉 등 情事場面이 눈 앞에 펼쳐지듯 하는 繪畵的 表現이 있다. 〈질방굴이 대엿슬 썬어붙이온이〉, 〈會寧 鍾城 다회를 못쓰게 썬어어 괴뭇섯신이〉, 〈와당탕 드리드라 이리저리 하니〉같은 것은 週濕的 雰圍氣描寫라 할 수 있겠고, 〈얼이북이 叛奴軍에 들거곤아〉, 〈모빌떡에 두

杖鉞), 〈內線진 부에폴로 時運지게 붓쳤신이〉 등은 相合 調和를 이루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뇌겨볼가 호노라〉는 女性을 「불」로 상징하는 데서 由來한 것이었고 〈자르들일〉 역시 男性을 「자루」로 상징한 데서 나온 表現이다. 다음으로 〈살쓰고 박음질〉, 〈죽흠에 뜰넛듯시〉, 〈국국기 뒤지듯시〉, 〈沙禦석 질오듯시〉 등은 가장 感覺的인 表現이며 〈토김록 잘맞는〉은 相對的 反應의 表現이라 보아진다.

六. 結

上代에 있어 神聖하고 生産的인 性의 觀念은 점차로 自由奔放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가다가 及其也는 性의 放蕩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性觀을 反映한 우리 詩歌文學의 樣相도 따라서 祭謠에서 淫詞로까지 바뀌었다.

時調가 生成發達한 時期는 過去 어느 때보다도 謹嚴한 倫理 道德이 社會를 支配하던 때이었다. 「性」이라는 本能的 欲求는 극도로 抑壓당하고 「男女七歲不同席」이 엄격히 遵守되던 社會體制였다.

「性」은 醜한 것, 께스러운 것이라는 觀念과 아울러 貞操에 대한 盲信은 執拗하였다. 이처럼 性을 禁忌로 여기는 倫理意識이 強力히 作用되던 時代的 背景은 本格的인 性文學作品은 姑捨하고 性을 主題로 한 어떤 글도 陽性化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制度가 엄격하고 規範이 무렵다 한들 人間本然의 感情이나 欲求를 아주 完全히 억눌러 枯渴시킬 수는 없었던 것으로 性을 다룬 作品들은 陰地에서 가만히 發芽하였다. 〈禦眠循〉, 〈村談解頤〉 등의 猥褻說話集이라든지 〈慵齊叢話〉 속에 散見되는 性說話등과 〈春香傳〉, 〈홍보전〉 등이 烈, 友愛, 勸善懲惡이라는 標題의 그늘 밑에 性描寫를 插入하고 있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귀음 더 노골적인 性文學作品의 性格을 갖는 〈가루지기打令〉도 作者가 不明한 것은 이것이 陰地의 文學이었음을 證明하고도 남음이 있는 事例이겠다. 이러한 文學作品이 製作된 것은 아마도 극도로 抑制된 本能的 欲望이 한 突破口 내지 發散口를 찾은 것이라고 보아진다.

이와같은 傾向은 時調文學 分野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時調文學은 그 主軸的인 主題가 「戀慕」요 「別恨」이라고 할 만큼 많은 輩의 노래가 男女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 愛情歌謠의 大部分이 精神的이고 觀念的인 노래들이다. 그리하여 現存時調中 性에 관한 時調는 少數에 不遑하다. 그러나 이들 少數의 時調들은 本稿에서 살펴본대로 그 表現面에 있어서는 대단히 선정적이고 寫實的이다. 만약에 것처럼 廢鎖的 規制가 加하여 지지않고 性에 관하여 보다 自由로운 雰圍氣가 형성된 時代나 社會였던들 더 많은 作品들이 製作되고 殘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실로 이들 時調들은 性

의 象徴에서부터 性戲의 描寫까지, 그리고 正當的 關係에서부터 臆色行脚에 이르기까지 各樣各色의 것을 모두 網羅하여 있으며 등장인물들도 多樣하다. 遊女나 遊郎들 뿐만 아니라 有夫女나 士大夫도 있고 僧侶, 女僧, 장사아치 등이 나오고 있어 當時의 여러 階層의 性愛, 그리고 道德의 겨울과는 矛盾되게 行하여졌던 亂淫의 흔적까지도 엿볼 수 있다. 性描寫의 이 몇 편 時調들은 비록 數的인 面에서는 少數이나 그 內容의 濃艷한 表現面에서는 〈가부지기 打令〉과 더불어 奇기한 性文學 系譜의 重要한 資料가 忒리라고 믿는 바이다.

本稿에서 筆者는 論述의 便宜上 間接的 性象徴의 作品으로부터 植接的이고 露骨化된 作品의 順으로 叙述하였다. 그러나 文學的인 側面에서 愛情詩歌를 論할진내는 當然히 그 逆이 되어야 할 것이다. 例컨대

드립더 받득 안으니 세허리마 ㅎ늑ㅎ늑
紅裳을 거두치니 雪膚之豊肥 ㅎ고 擧脚 踏坐 ㅎ니 半開한 紅牡丹이 發郁於春風이로다
進進코 又退退 ㅎ니 茂林山中에 水春聲인가 ㅎ노라

類의 極端의 官能的이고 肉體的인 것으로부터

玉이 玉이리커놀 嬌王만 너겨씨니
이제야 보아 ㅎ니 眞玉일시 격실 ㅎ다
네게 슬송곳 잇건이 뚜려볼가 ㅎ노라

類의 多少는 隱喻的인 過程을 거쳐

어이 얼어 잘이 무스 일 얼어 잘이
鶯鶯枕 翡翠衾은 어찌 두고 얼이 자리
오늘은 춘비 맞자신이 녹아 갈까 ㅎ노라

類의 象徴的인 것으로, 다시 여기에서

冬至스들 지나긴 밤을 흰허리를 내혀내어
春風 너를 아래 시디시디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뵤구뵤 퍼리라

類의 隱喻的이고 暗示的인 것으로 漸次 昇華되어 마침내는

千萬面 지나면 길에 고은님 여희옴코
내 마음 들되 업시 냇마에 안즌이다
저 물도 내안 ㅈ도다 우리 밤길 네눗다

類의 높은 次元의 精神的 戀歌에 까지 도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上昇過程에 있어서 性의 時調들은 愛情詩歌의 가장 初步的인 段階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높고 그윽한 어떤 哲學性보다는 赤裸裸한 人間感情의 表出이며 欲望의 솔직한 告白이다. 따라서 이들 時調들은 肉體的인 사랑이 精神的으로 昇華되는 筈바탕, 저 戀君之情을 읊은 것같은 高次元의이고 觀念的인 愛情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 그리고 高雅하고 세련된 抒情歌謠 成立의 한 契機가 되는 점에서 그 값어치를 높이 사야 하리라고 본다.

<參 考 文 獻>

高麗史
 三國史記
 三國高史
 慵齋叢話
 古歌研究 梁柱東著 博文出版社 1963.
 春香傳·具滋均校註譯 民衆書館 1970.
 時調文學事典·鄭炳豆編著 新丘文化社 1972.
 韓國文學史·趙潤濟著 探求堂 1963.
 韓國古典文學全集(Ⅰ) 韓國古典文學全集編輯委員會編譯 希聖出版社 1965.
 韓國說話文學研究·朴德順著 서울大學校 出版部 1971.
 韓國文化史大系Ⅶ·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編 1971.
 性과文學·D.H. 르오렌스著 金秉喆譯 韓國圖書出版社 1959.
 民學 2·民學會編 에필레 美術館 1973.
 世界文化史(上)·그레인 브린頓外 二人共著 梁秉祐外 三人譯 乙酉文化史 1967.
 亞世亞研究(通卷第七號) 高麗大學校亞世亞問題研究所 1961.
 國語國文學誌 第三輯·釜山大學校 1961.
 月刊文學 28號 月刊文學社 1971. 2월호.